

최후의 만찬과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수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26:1-2)

예수님은 24:3에서 시작하셨던 감람산 강화를 마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감람산 강화를 월요일에 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날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즉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월요일에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월요일에 하셨다면 유월절은 물론 수요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마도 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신 것이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그 기간을 일요일에 일어났던 부활로 따져서 도출해 내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일요일에 부활했다면 삼 일 밤 낮이 되지 못합니다.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26:3-5)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 두 사람이었는데 가야바는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을 받은 자요 안나스는 이스라엘 종교인들에 의해서 인정된 자였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를 궤계로 잡아죽이려고 의논했는데 민요가 날 위험이 있으니 명절에는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유월절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 다른 날이 아닌 유월절 축제일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축제일을 피하고자 온갖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유월절 희생양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26:6-9)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제자는 가롯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수 천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분개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유다가 이렇게 말할 동기를 그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요한복음 12:6).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26: 10-13)

예수님의 꾸중 섞인 말씀에 다소 감정이 상한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자 가롯 유다는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 삼십은 구약성경 스가랴 11:12에서 예언된 가격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리라’는 스가랴 11:13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은 삼십은 또 자기 소가 이웃을 받아 죽였을 때 물어주어야 하는 배상금의 액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게 됨으로써 민요를 두려워하여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바치는 일에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26:17-19)

유대인들은 자정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일몰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 만찬을 토요일 밤에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몰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일몰 후의 저녁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월절은 그 다음날의 일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월절은 우리가 빵 한 조각과 포도즙 한 모금을 들면서 성만찬이라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축제였으므로 어린 양 하나를 통째로 구워 먹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아가페 만찬, 즉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 날 밤에 가롯 유다는 겐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다음날 아침, 즉 유월절이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26:20-24)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26:25)

유다는 이미 예수를 넘겨주기로 제사장들과 약속을 한 상태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만찬 제정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26:26-29)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성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십니다.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옛 언약은 매년마다 되풀이 되어야 했습니다. 옛 언약에 따라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였다면 매년마다 되풀이할 필요도, 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히 7:27).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약의 유월절 축제 행사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려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름다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26:30)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른 찬송은 시편 136편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유월절 끝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까지 계속되는 찬송에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오게 하신 것은 모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26:31-35)

베드로는 육체 안에서 자랑하는 죄를 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가라의 예언을 인용하여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장담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틀린 것은 항상 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 순간 정말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으며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능력에 근거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고 확신해도 실제적인 문제는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육신의 약함이라는 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 욕망이나 신실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육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셨습니다. 나는 내 몸의 체질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제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보다 더 현명하고 실제보다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육체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는 자라면 우리의 힘은 스스로에 의해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무제한의 힘, 무제한의 잠재력, 무제한의 능력을 소유하는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26:36-38)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명의 제자는 평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할 만 하시거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 이 피의 잔을 마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만약이라도 있다면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죄사함이 인간의 선행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불경죄란 없을 것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만일에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이 성실함이나, 선함,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간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요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들어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그러나 저는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대안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선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덕이나 법 따위를 제정하여 당신이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이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26:40-41)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께 용기와 힘을 주어야 했지만 너무 피곤하여 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며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26:42)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26:43-44)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롱이나 책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 뒤에 몇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에 피곤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을 내려다 보시며 예수님께서 속으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며 깨어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가 오기를, 즉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다리시는 바로 그 몇 시간 동안에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식사 후에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 당시 저녁식사는 보통 6시 전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신 후 유다가 오기까지는 몇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사장 가야바의 집에 계실 때에 닭이 울었으므로 그 때는 아마 새벽 5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혼돈과 방향을 미리 아시고 저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때 예수님은 겻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는 군사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난당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체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답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26:47- 49)

헬리어로 입맞춤을 나타내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아내의 볼에다 하는 입맞춤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정적인 입맞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다의 입맞춤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8절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잡으라”고 했을 때는 전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입맞춤의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49절에서 유다가 실제로 예수께 입을 맞출 때에는 후자의 입맞춤, 즉 열정적인 입맞춤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26:50)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야 (열정적인)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체사장의 종의 귀를 쳐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검을 뺀 자가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의 그의 성급함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26:52-53)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 저녁 한 때에 앓수르 진영을 다니면서 십팔만 오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 열두 부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26:54)

예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시며 구속을 위한 수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26:55-56)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셨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언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26:57-62)

물론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18-21).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26:63-67)

이사야 50:6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 침뱉는 행위는 철저한 경멸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냥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 아래에서 끌어내어 뱉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얼굴을 가리고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도 뛰어난 반사작용이 있어서, 만일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면 몸은 그 주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얼굴을 뒤로 뺨으로써 그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미식축구에서 쿼터백이 가장 큰 부상을 입을 때는 부딪치는 사람을 못보고 넘어질 때입니다. 덩치 좋은 상대방 선수가 온 몸으로 태클할 때 그 태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몸을 부드럽게 하여 함께 구르며 넘어지게 됩니다. 권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이 들어올 때 그 주먹과 함께 몸을 뒤로 빼면 그만큼 충격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은 모든 반사적 충격 흡수 행동을 차단한 것으로 더욱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회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2장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그 얼굴이 너무도 비참하게 변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염이 뽑히고 얼굴을 가리운 채 난타당해 통통 부어올랐을 것이고 피와 멍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사 53:3-4).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아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로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26:69-75)

우리는 베드로를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맹세코 하지 않으리라던 일을 하고,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행동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위안을 주는 사실은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고, 충동적이었고, 칼을 함부로 휘둘렀고, 자주 책망을 들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압력에 못 이겨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면 우리 같은 자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쓰실 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은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